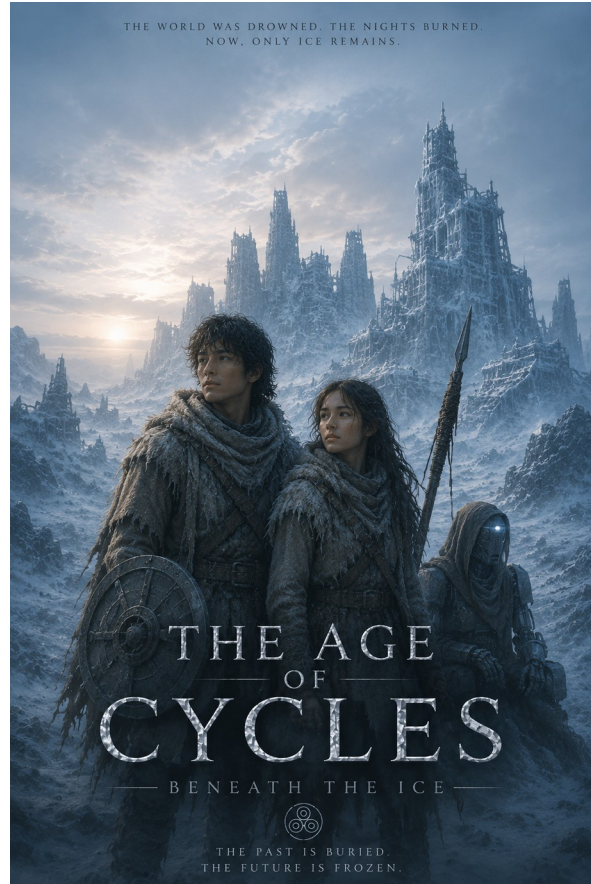


AI 활용 과정 및 결과물

다시, 감독을 꿈꾸다

AI가 만들어준 꿈이 아니라,
오래전에 내려놓았던 꿈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



글 → 그림 → 영상 → 음악 → 목소리 → 다시 영상 연출로

공모전 접수창의 ①~⑤ 활용 사례 본문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AI를 만나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과정부터 웹소설·웹툰·쇼츠·음악·음성·영상으로 확장해 온 실제 경험과 결과물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방송 현장, 그 시절의 나

오래전, 우연한 기회로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 할 만큼 뛰어난 감독님들과 여러 작품에서 함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독님들은 저에게 현장 업무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대본을 주고 스태프가 아니라 연출자의 입장에서 읽고 분석해보라고 했습니다.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인물과 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게 했고, 대본을 수정하거나 직접 써보게 한 뒤 부족한 점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제작 현장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AI로 재현



감독에게 대본 분석과 글쓰기를 배우던 장면을 AI로 재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내 이야기를 쓰고, 직접 연출해보고 싶다.’ 하지만 비정규직이었던 저에게 직접 연출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생활이라는 현실이 있었고, 결국 방송국을 떠나면서 연출에 대한 꿈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2. 세월이 흐른 뒤, AI 를 만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ChatGPT 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한 것을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웹소설을 접하면서 문득 '나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혼자서 이야기를 써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고, 몇 번을 시작했다가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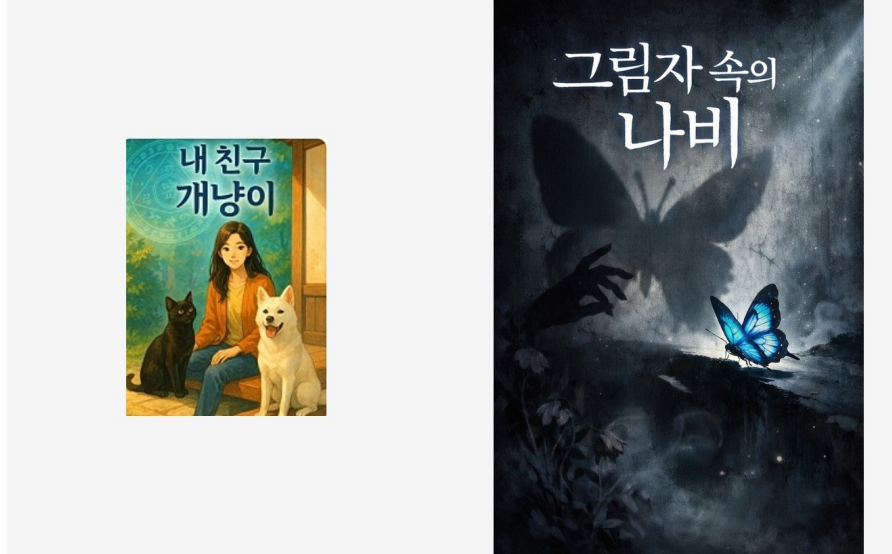
AI 와 함께 다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순간을 표현한 재현 이미지

AI 를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구상할 때는 생각을 함께 정리해주는 보조자가 되어주었고, 작품을 쓰다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정리해주는 자료 조사원의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시작하지 못하고 접어두었던 이야기를, 비로소 실제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 첫 결과물 - 웹소설, 그리고 AI의 한계를 배우다

처음에는 ChatGPT에게 웹소설의 구성과 이야기 전개 방법을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전체 스토리라인을 함께 정리했으며, 작품을 쓰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필요한 정보를 질문했습니다. 당시 긴 분량을 계속 이어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Claude 등 다른 생성형 AI도 함께 활용했습니다.



AI와 함께 완성한 웹소설 결과물 예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I에게 전부 맡긴다고 제가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야기의 흐름이 처음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고 →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 원하는 방향을 다시 설명하고 → 수정된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정했습니다.

AI가 작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하고 AI와 함께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4. 글에서 그림으로 - 웹툰에 도전하다

웹소설을 완성하고 나니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쓴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번에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이용해 웹툰에 도전했습니다.



웹소설에서 더 나아가 제작한 웹툰 장면



2D 요청과 실제 생성 결과가 달랐던 시행착오 사례

여기에서도 AI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인물을 요청했는데 얼굴이 달라지거나, 원하는 자세와 구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D 캐릭터를 원했는데 실사풍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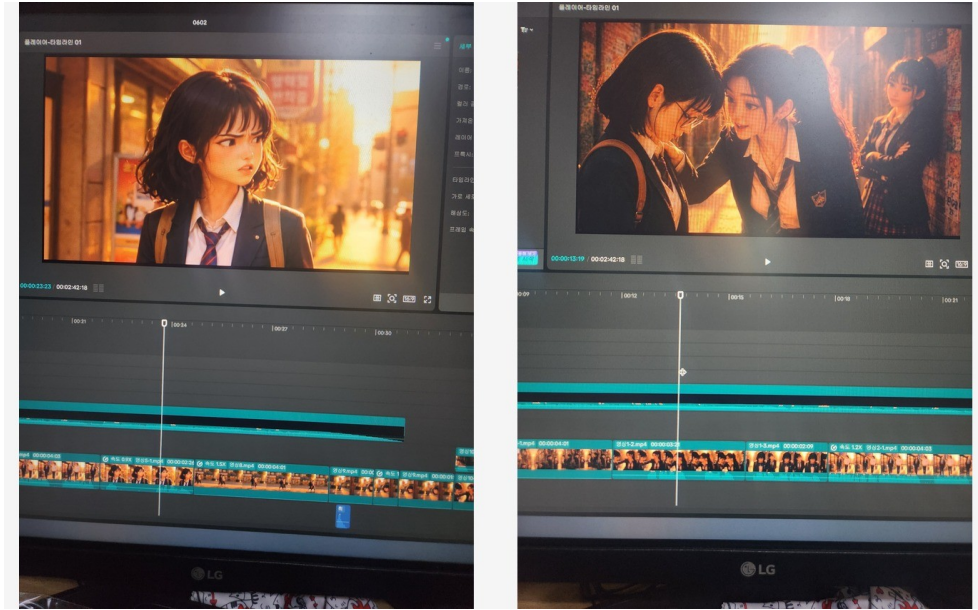
이미지 하나를 만들 때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직접 찾아내고, 다시 설명하고, 수정된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때부터 AI에게 무엇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만큼, 만들어진 결과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 → AI에게 설명하기 → 결과 확인하기 → 문제 찾기 → 다시 설명하기 → 수정하기 → 최종 선택

5.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 쇼츠로 쌓은 경험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이번에는 ‘이 그림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영상 생성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긴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연습 삼아 짧은 쇼츠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실제로 유튜브에 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들어보니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과 영상을 만드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AI로 생성한 장면과 음성·음악을 편집 프로그램에서 조합하는 실제 작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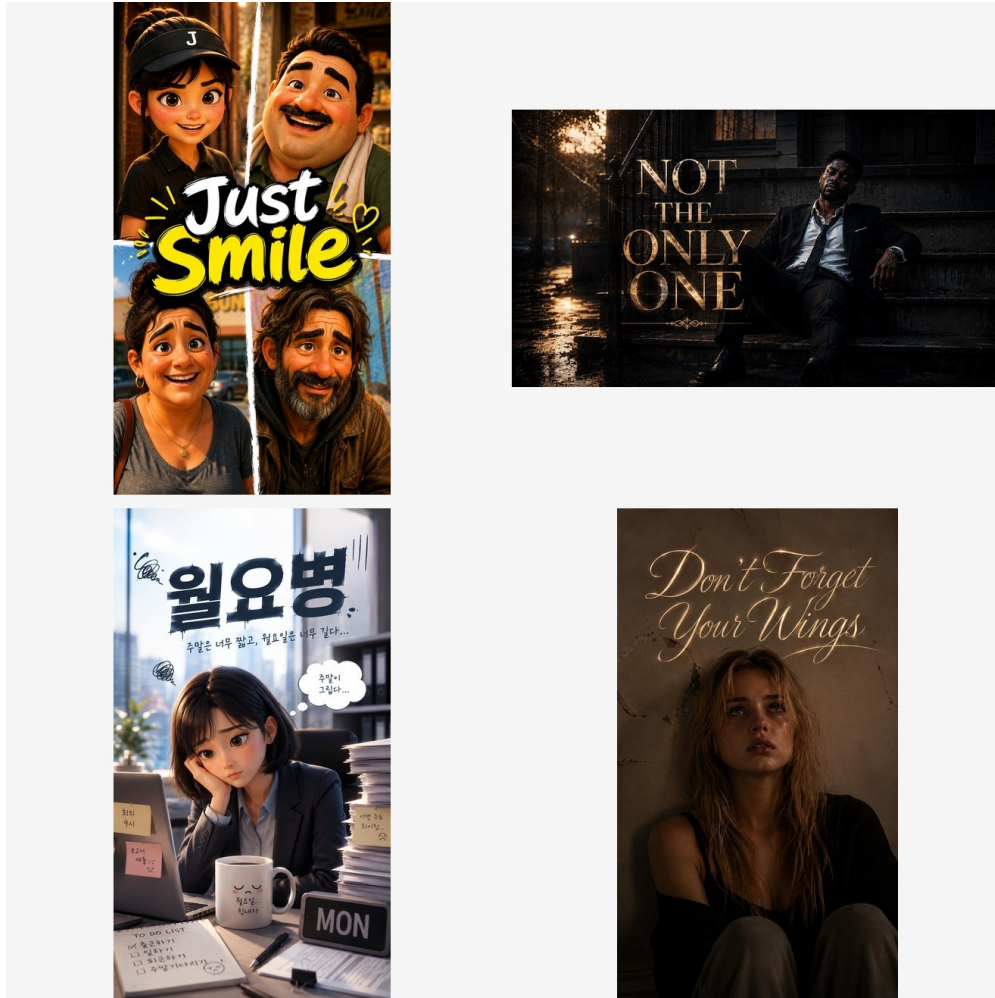
짧은 영상이라도 장면의 순서와 길이를 정하고, 움직임을 만들고, 음악과 효과음을 넣고,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씩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보면서 어떤 장면이 자연스러운지,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확인했고 그 경험을 다음 작업에 반영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AI를 배우겠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다가 벽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그때 필요한 AI를 하나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6. 영상에서 음악과 목소리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또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음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 프로그램인 CapCut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계속 만들면서 제공되는 음악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장면의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AI 음악 생성 도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에 사용할 음악이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져 아예 노래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음악노래 결과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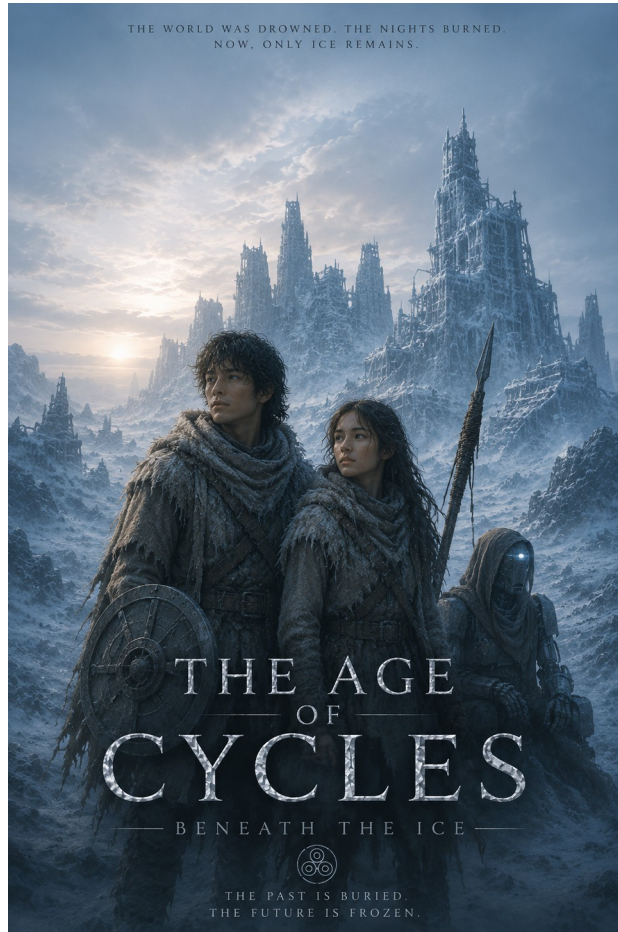
그리고 영상 속 등장인물이 직접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AI 음성 도구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등장인물에게 어울리는 목소리를 만들고 대사를 입히면서, 가만히 있던 그림 속 인물이 움직이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 → 그림 → 영상 → 음악 → 목소리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배우고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7. 다시, 감독을 꿈꾸다

지금 저는 제가 직접 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 형식의 영상을 만드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AI가 모든 것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장면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번 시도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현재 제작을 이어가고 있는 AI 영상 프로젝트 《THE AGE OF CYCLES - BENEATH THE ICE》

그래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AI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도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어느 순간 가능해지는 모습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AI가 저에게 새로운 꿈을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내려놓았던 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오래전 방송국을 떠날 때는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카메라 대신 컴퓨터가 있고, 배우 대신 제가 만든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목소리를 입히고, 장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AI와 몇 번이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는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기회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감독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제가 상상했던 이야기를,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화면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 방송 현장과 과거 장면 이미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AI로 재현한 이미지입니다. 그 외 이미지는 실제 AI 활용 과정에서 제작·편집한 결과물입니다.